

일본의 장기침체와 한국에 대한 교훈

요시노 나오유키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소장)

일본경제는 1990년대 거품붕괴 이후 20년 이상 장기침체를 경험하였다. 미국 경제학자는 일본 경제침체의 원인에 대해서 금융정책의 문제로 인해서 경기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즉 일본의 금융시장이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져있으며, 이러한 유동성 함정이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일본의 장기침체의 요인으로서 구조적 요인 (일본의 고령화, 중소기업 및 벤처 비즈니스(Venture Business)에 자금이 흐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

고령화 대책으로서는

- (1) 연공서열 임금제를 폐지하여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지불할 것,
 - (2) 정년 후에도 오랫동안 일하고 연봉은 생산성에 따라 조정할 것,
 - (3) 부모가 일하고, 어린이 보육 시설을 개선할 것,
 - (4) 일본에 있는 로봇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령자에게도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할 것,
 - (5) 지방의 중소기업과 벤처 비즈니스에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흠타운 투자펀드(Hometown Investment Trust)」를 촉진할 것,
 - (6)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의 농지에 임대제도를 도입하여, 젊은 층 중에서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쉽게 농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것,
- 등의 방안이 제시된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관련 지출과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의 보조금을 합산하면, 정부지출의 대략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린이들 교육비는 겨우 6% 정도에 불과하다. 재정적자축소를 위해 소비세 등의 세금을 인상할 뿐만 아니라 세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보장 및 연금의존도를 줄이고, 지방의 벤처 비즈니스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흠타운 투자펀드」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이 파탄하지 않도록, 세출·세입 룰(rule)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금융자산운용에 있어서도 일본은 외국보다 열등하며 금융자산의 운용수익률이 매우 낮다. 그 이유는, 금융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 신탁보수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보다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수료 체계에 대해 제언한다.

한국에 대한 제언으로서는

- (1)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한국 고용제도의 변혁
 - (2)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자금제공이나 중소기업 데이터 분석에 의한 중소기업 신용평가제도의 구축
 - (3) 재정적자의 확대를 막기 위한 재정 룰의 구축
- 등을 설명한다.